긴급진단 **돈선거 온상 조합장 선거**

"돈 안 쓰면 표 못 얻어" 선거 막판 '뒷 돈' 난무

❶ 광주·전남 실태
❷ 기본이 3억
❸ 조합장이 뭐길래
❹ 대책은 없나

광주·전남에서의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불법 백화점'으로 통한다. 선거 때마다 금품 살포와 음식물 제공, 상호 비방 등 각종 불·탈법 행위가 어김없이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선거 출마자들은 조합장이 되기 위해 수억원대의 '검은돈'을 쏟아 붓는다. 일각에선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면 최소한 3억원이 있어야 한다'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복마전'의 멍에를 쓴 데는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인식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조합장 선거=돈 선거'의 등식이 깨지지 않는 이유다.

5일 만난 A씨는 "돈을 쓰지않고는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A씨는 올 하반기 전남지역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섰다가 '돈 선거'의 실상 만을 체험한 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A씨는 "출마 당시 지명도가 높고 인기가 있어 당선될 것이라는 민심이 선거 4~5일 전 급격히 돌아섰다"며 "상대 후보가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말을 애써 외면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선거가 끝난 뒤 알아보니 상대 후보 측에서 각 마을의 유력자 수십명에게 건네준 돈이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흘러들어갔다"며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들의 표를 돈으로 사는 선거"라고 했다.

B씨는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믿었다가 떨어진 케이스. B씨는 올 초 모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3명에게 "돈 쓴 흔적만 있어도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B씨는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돈을 쓰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 농협 간부 출신이라는 '메리트'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농협 업무를 전혀 모르는 정치인 출신의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이다.

B씨는 "선거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 유권자들이 미리 당선을 축하할 정도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며 "우리 선거구에서 '돈 봉투가 돌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선관위의 말만 믿은 것을 후회했다"고 털어놨다.

조합장 선거가 각종 부정으로 얼룩진 것은 선거방식의 허점과 유권자들의 의식부족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출마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금품을 건넨 후보에게만 표를 주는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신만 '뒷짐'을 지고 있다간 낭패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광주 S농협의 경우 조합장들의 부정선거로 인해 최근 4년간 3번이나 선거를 치르는 '악몽'을 겪었다. 이 농협은 지난 2005년 이후 당선된 조합장 2명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했다. 심지어 올해 당선된 C씨는 선거 닷새 만에 구속됐다.

무자격자를 투표에 참여시켰다가 조합장 당선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7일 전남 모 조합장 D씨에 대해 당선 취소 판결을 했다. D씨는 지난해 치러진 선거에서 자격을 잃은 조합원 6명을 투표에 참여시켰다가 '당선 무효'의 쓴맛을 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투표 4~5일 전 '표심' 요동
"선관위 단속 만 믿다간 낙선"

강진도암농협장 '돈 선거' 수사

조합원들 금품수수 확인

강진도암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진경찰은 5일 강진도암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A후보측이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후보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전면의 K씨는 지난 7월 A후보의 중간책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도암면 Y씨는 20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이 2천50명에 이르는 강진도암농협 조합장 선거는 오는 9일 치러질 예정이며, 2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헌혈 나선 공무원들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헌혈의 집에서 북구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신종플루 확산 등에 따른 혈액수급난을 덜어주기 위해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황당 경찰 "어? DNA가 다르네!"

나주 노파 살인 용의자 5일만에 석방 … '부실 수사' 논란

진범 추정 40대 검거

지난달 나주에서 발생한 노파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DNA 불일치'로 구속된 지 5일 만에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80대 노인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난달 29일 검거한 A(66)씨를 지난 3일 구속 취소하고 석방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나주시 B(여·88)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의 모자가 발견되고 범행을 자백까지 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면회 온 가족에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까지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A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현장검증 도중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당황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침과 담배꽁초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DNA는 A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검거 5일 만인 지난 3일 밤 부랴부랴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풀어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 고문을 할 것 같아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변호사·판사 앞에서도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5일 완도에서 이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B(48)씨를 붙잡아 범행 여부를 캐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도박 단속 피하려다 추락
부상 할머니도 끝내 사망

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70대 할머니 2명이 건물 아래로 추락한 사고<본보 5일자 6면>로 중태에 빠졌던 할머니 1명이 추가로 숨졌다.

광주동부경찰은 5일 금남지구대 경찰관의 단속과정에서 건물 아래로 추락, 중태에 빠졌던 정모(여·71)씨가 사고 당일인 4일 밤 10시께 숨져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의 도박 단속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2명이 사망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한 화투와 신고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도박판을 벌였다고 확신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며 "용의자 2명은 과거 도박 혐의로 적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2명이나 죽었다.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으냐"고 말했다.

경찰은 M식당 2층을 빌린 40대 남성을 도박장 개설자로 보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도박 판돈과 참여 인원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극

前 구의원 구속

광주지검은 5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 안팎에서 도주극을 벌이고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진정서까지 제출한 전직 광주 북구의회 의원 A(62)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광주시 북구 장등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용변이 급하다"며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버티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까지 낸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946〉 김종두

정신장애인 유인 공장 보내

목포경찰은 5일 정신장애인을 공장에 팔아넘기려 한 김모(48)씨를 특가법상 영리유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난 A(22·지체장애 3급)씨를 목포로 데려간 뒤 돈을 받고 공장에 넘기려 한 혐의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판사 불신' 전남대 교수 신간 펴내

쌍나팔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을 내 파문을 일으킨 전남대학교 류명걸(62) 교수가 '변론-나는 현직 대법원 판사들을 고소했다'라는 제목으로 신간을 펴내 눈길.

○…류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소송 기록과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불만 등을 소개했는데, 소제목도 'OOO판사는 웃겼다', '웃기는 재판관에 대한 나의 경고'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깊은 불신을 토로.

○…류 교수는 2005년 자신의 민사소송이 각하된 데 반발해 쓴 '아! 현직..'라는 책을 당시 사건 담당 판사에게 보냈다가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

○…류 교수는 징계취소 소송 마저 기각되자 자신을 '판사 협박범'으로 무고했다는 취지로 대법관 4명 등 9명을 검찰에 고소. /최경호기자 choice@